

돼지이력제 해외사례조사

-네덜란드의 실시사례 중심-

이력관리팀 과장 김용훈
유전자분석팀 과장 양대용

축산관련 종사자 분들은 모두 알고 있듯이 '10~11년 전국을 휩쓴 구제역, FTA로 축산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 축산업은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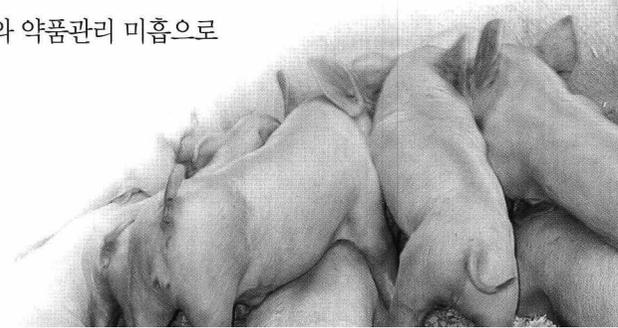
이런 상황에 정부에서는 축산업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돼지이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기관에서는 돼지이력제의 본격적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로 수차례의 내·외부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하여 실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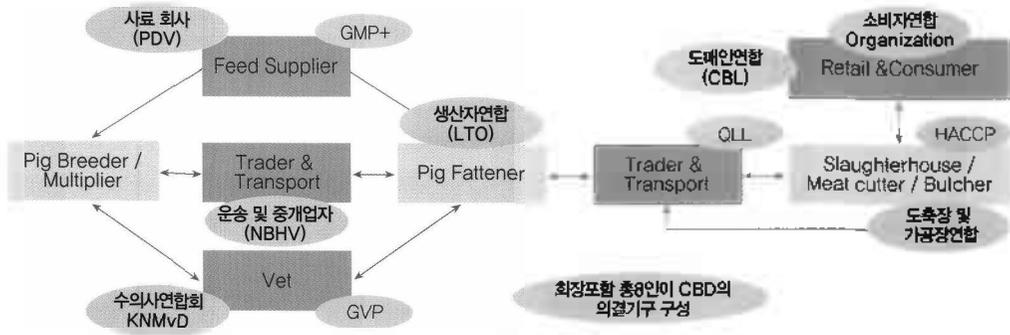
이번 해외사례조사는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종축개량협회의 이력제 실무자들과 조사단을 구성하여 돼지이력제를 먼저 시행한 유럽국가 중 네덜란드, 독일의 제도 시행 사례를 조사하고 돌아왔다.

돼지의 경우 사양·유통관리 과정이 소와는 달라, 제도 시행에 앞서 우선 시행한 국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습득하여 제도 애로사항 및 운영상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 조사단에겐 중요한 관심사였다. 전체 일정은 2011년 12월 11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사육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를 보아야 하기에 조금은 빡빡한 일정으로 네덜란드에서 7일을 보내고, 하루는 인접국인 독일을 다녀왔다. 본 글에서는 네덜란드의 돼지이력 운영제도를 단계별로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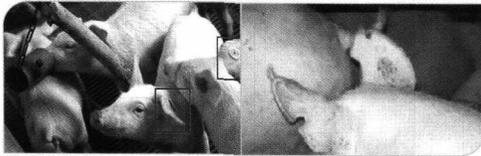
사육단계

네덜란드의 경우 '97년 돼지열병 발생으로 수출중단 등 돼지고기 안전성에 대해 양돈산업이 큰 충격을 받았다. '98년 한 해 동안 사육두수의 절반에 가까운 1천만두를 살처분하고 나서야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으며, 양돈농가, 식품생산업체 등 민간의 생존권 차원에서 돼지이력제도가 강력하게 요구되어 도입되었다. 특히 유통 이력추적관리 차원에서 안전한 식품생산을 위한 관리 인증제도 즉 IKB(Integrierte Kettenüberwachung)인증시스템을 통하여 생산단계 제도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 인증제도는 Co-more라는 우리기관과 같은 준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료관리, 질병관리, 이동관리, 위생요소관리 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요 중점관리 항목 중 문제 발생 시 즉각 유통이 차단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농장 돼지의 혈청·모근 검사결과 출하 전 항생제 검출 시 즉시 출하제한 등의 조치와 약품관리 미흡으로 IKB인증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IKB시스템 운영 모식도



농장내 출생후
귀표부착된 돼지

종돈 및 모돈,
개체별 귀표부착 관리

네덜란드의 일반 돼지농장에서는 출생 후 1주일 이내에 노란색 원형귀표를 부착하여 비육돈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모돈과 종돈은 품종개량 등 유전정보 관리를 위하여 RFID가 장착된 개체별관리 귀표로 이력관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돼지이력제도의 운영상 특징은 강력한 농장·차량 등록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난 '08년 돼지열병 확산 원인을 농장 간 돼지이동으로 보고 돼지의 이동신고 정보들이 중앙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도축장까지 철저히 관리되고 있었다.

도축단계

도축장의 돼지이력관리는 사육단계의 농장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출하 시 각 돼지에 금속성소재의 귀표(메탈 귀표) 및 출하증명서를 통하여 이력이 검증된 돼지만 도축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비록 농장에서 귀표부착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지만 도축장에서 농장의 이력정보 관리 및 제공에 대한 보조금 등을 농장에 지급하여 철저한 이력관리를 유도하고 있었다.

〈농장장-농장등록번호〉

- 원형귀표(7자리) 예 : 0832601

〈도축장(메탈귀표-)〉

- 원형귀표(7자리) 예 : 0832601
- 메탈귀표 앞(7자리)
 - 원형귀표와 동일 번호 예 : 0832601
- 메탈귀표 뒤(6자리)
 - 출하증명서에 기록된 도축출하번호
예 : 260001~260599, 총600두



도축출하번호 체계(네덜란드 VION도축장)



유통단계

네덜란드의 양돈 유통시장은 도축장과 유통업체가 도축 및 가공장을 겸하고 있었으며, 도축장에서 도체에 별도의 이력번호(묶음번호 등)를 표시하여 기록·관리하고 있었다. 이 묶음번호는 판매장으로 유통되는 돼지고기 제품의 절면에 표시되고 있었다. 견학을 한 VION 도축장의 경우 해당 도축일의 모든 돼지도체에 동일한 묶음번호로 표시하고 있었으며, 이와 연계된 가공장에서 박스 라벨을 통하여 상품에 부착하고 관리되고 있었다.

물론 해당 일자에 질병 등 문제가 있는 돼지고기가 도축되어 가공된 경우 모든 돼지고기에 대하여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 그 VION 가공장의 돼지고기 이력관리에 대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다.

유통단계 돼지고기 이력관리가 우리나라 쇠고기이력시스템처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이력정보 조회 서비스 등이 이뤄지고 있지 않았지만, 해당 유통업소가 이력정보 관리 등 근거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소비자, 감독기관 등에 자료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엄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끝으로 가공육, 대형 유통업체 중심시장 등 돼지고기 유통구조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점이 있어 성급히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축산업의 한 단계 발전과 지속 가능한 양돈산업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제도임을 느꼈으며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돼지이력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좋은 사례를 접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된 해외 출장이었다.



포장된 돼지고기



라벨 표시 묶음번호(Batchnumber)

